

보도시점

2023. 9. 21.(목) 12:00

배포

2023. 9. 21.(목) 12:00

농어촌공, 기후 위기에 처한 ‘투발루 응원’에 적극 나서

- 성공적인 ODA 사업 진행과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염원 담아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투발루 응원캠페인’를 통해 2030 세계 박람회의 부산 유치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엑스포 투표권 보유국인 ‘투발루’는 남태평양 한가운데 위치한 섬나라로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30년 뒤에는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공사는 지난 13일부터 투발루가 처한 위기 극복을 위해 임직원 및 부산 동성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그림, 편지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 호소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지지의 염원을 담았다.

이어 어제부터 오늘까지 양일간 개최되고 있는 ‘2023 세계어촌대회’에서 공사는 홍보 부스를 활용한 ‘투발루 응원캠페인’을 전개하여 행사장을 방문한 투발루 Kitona Tausi 수산통상부 장관이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11월 진행할 한-투발루 교류 행사에서는 투발루 Nauti Primary School 학생 50여 명과 함께 기후 위기 극복과 부산 엑스포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담아, 투발루에서 시행 중인 공사의 어촌 ODA사업*을 통해 건립 예정인 푸나푸티 커뮤니티센터 벽면에 응원 메시지를 메탈포토** 형식으로 부착하여 관심을 촉구할 계획이다.

* 투발루 어촌뉴딜ODA사업: 커뮤니티센터, 소형선부두 설치 등(23~’26년, 67억원)

** 메탈포토: 일반 사진을 스캔하여 금속 위에 나노 기술로 각인한 사진

이병호 사장은 “작은 메시지가 모여 기후 대응을 위한 국제 사회에 큰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담당 부서	어촌수산처	책임자	부 장	강신길 (061-338-5491)
	어촌총괄부	담당자	과 장	김옥주 (061-338-6136)

1.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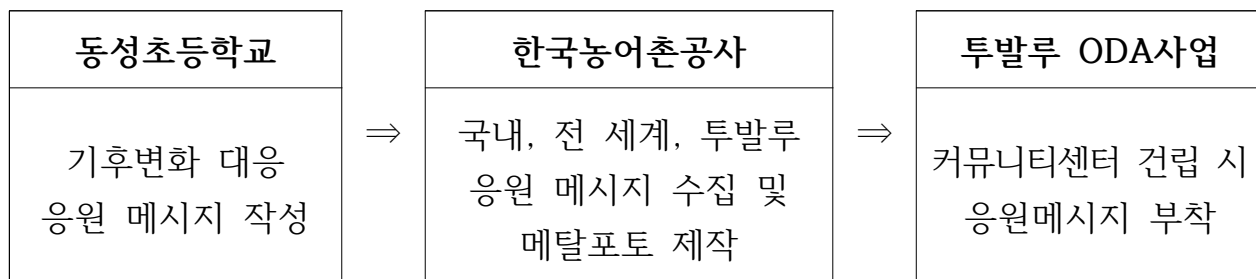
- 투발루는 남태평양 도서국으로 국토 면적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작은 나라로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한 수몰 위기에 처함
- 해양수산부 해외 ODA사업으로 투발루* 어촌뉴딜사업 추진 중에 있음
* 커뮤니티센터, 태양광 설치, 소형선 부두, 주민역량강화, 2023년 ~ 2026년, 67억 원
- ODA 사업을 통한 참치 원양 선사의 입어로 절감 및 2030 부산엑스포 유치지원

2. 추진 계획

- 투발루 ODA사업으로 건립 예정인 『푸나푸티 커뮤니티센터』 벽면에 기후변화 위기 극복 투발루 응원 메시지를 메탈포토 형식으로 부착

* (전 세계) ICFC 초청한 대상국가 52개국 관계자를 대상으로 홍보부스를 통한 메시지 작성
* (국 내) 부산 관내 초등학교 학생 및 ICFC 참가 국내 관계자 50여 명 대상 메시지 작성
* (투 발 루) 한-투발루 교류행사 시 투발루 Nauti Primary School 초등학교 학생 50여 명을 대상으로 메시지 작성

- 메탈포토 제작·설치 절차



○ (대상지) 투발루 푸나푸티 커뮤니티센터 조감도(안)



○ (예 시) 응원 메세지 및 메탈포토 제작

